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의 새 물결

최해리 | 무용월간지 『몸』 편집장

모든 춤과 무용수의 몸은 정치적이며 민족적이라서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컨템포러리댄스가 몸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확장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무용수의 몸은 정치적인 발언을 담는 공간, 즉 '정치적인 몸(political body)'을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에게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현대무용은 요원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장일기

영국의 혁신적인 무용단이 신작 세계 초연을 갖는다고 해서 강남에 위치한 모기업 극장에 가다.

↳ Re: 한국이 글로벌한 문화 국가로 진입한 것이 틀림없어!

무대가 시작 전부터 오픈되어 있다. 액자식 이중 구조와 필름 개막을 연상하게 만드는 영상과 스태프 크레디트가 인상적이다.

↳ Re: 유럽형 공연의 새로운 트렌드인가 본테 열심히 입력해 줘야겠다!

여주인공이 영어 대사로 공연을 시작한다. 대사는 약 10분간에 걸쳐 움직임과 함께 계속된다.

↳ Re: 글로벌 시대에 저 정도 영어쯤이야~. 어? 뭔 말을 한거지? 관객들이 막 웃는데??

무용수들이 발레, 브레이크 댄스, 나이트 댄스, 모델 포즈, 요가 동작, 미술 등 온갖 쇼를 벌인다

↳ Re: <Just For Show>라는 제목 그대로군! 대중적이고 감각적인데!

여주인공이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들 틈에 비집고 앉는다. 맘에 드는 남성 관객에게 이름을 묻고 키스도 해주고 와인도 가져다 준다.

↳ Re: 자신들의 무용단 'DV8'이라는 이름처럼 완전 '일탈(deviate)'을 시도하는구나!

남녀 무용수 두 명이 옷을 훌러덩 벗어서는 누드로 무대를 오간다.

↳ Re: 그래 누드는 이제 유럽 무대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그 남녀 무용수가 섹스와 유사한 행위를 벌인다.

↳ Re: 이크! 아직은 당혹스러워 두 눈 뜨고 못 보겠구만! "오~! 베이베, 본능에 충실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대중예술적 요소와 '난 팬찮아요!'를 중얼거리는 우울한 남성 무용수

의 독백에서 이 작품이 의도한 상징과 은유가 노출된다.

└, Re: 안무가의 수준 높은 지성, 세계관, 시각성에 압도당하겠군!

무대 스태프 한 명이 흑판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신작에 대해 묻는다.

└, Re: 니네가 진짜 쇼를 하는구나!

- DV8 피지컬 씨어터의 〈Just For Show〉 공연 현장에서 -

컨템포러리댄스(동시대의 현대무용)

최근 들어 무용계에서는 '현대무용(modern dance)'의 고정되고 획일화된 안무스타일을 벗어나는 춤을 지칭하는 대체 용어로서 '컨템포러리댄스(contemporary dance)'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래 컨템포러리댄스라는 용어는 '동시대의 춤'이라는 의미로 현대무용의 동의어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영국의 뉴댄스(New Dance), 프랑스의 누벨 당스(Nouvelle Danse)를 비롯해 1970년대와 80년대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현대무용이 물결치고, 90년대에 들어서 벨기에의 '플라망 스타일(Flemish: 원어는 벨기에의 공용어를 지칭)'이 세계 공연예술계를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동시

대의 현대무용'을 의미하면서 유럽의 혁신적인 현대무용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춤장르에 대한 명명성, 개념 정의, 분류 체계 등 아카데미한 작업이 더딘 한국의 무용계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미국의 현대무용 혹은 포스트모던댄스와 변별성을 갖는 유럽 현대무용의 본성을 인식하고서 컨템포러리댄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공연장과 국제적인 춤페스티벌들이 극단적인 표현주의, 음악·연극·춤·멀티미디어의 혼성 공연, 신체극(physical theatre) 스타일을 표방하는 유럽 최선의 현대무용단들을 경쟁적으로 소개한 데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얼마전 LG아트센터에서 내한 공연을 가진 영국 DV8 피지컬 씨어터(Physical Theatre)(3월 31일~4월 2일)와 벨기에 로사스 무용단(Rosas)(4월 14일~16일)의 작품들은 한국 관객들로 하여금 유럽 컨템포러리댄스의 성격과 한계성을 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벨기에 플라망 스타일의 선구자 로사스 무용단의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Arne Teresa De Keersmaecker)가 안무했던 〈비치스 브루/타코마 협교(Bitches Brew/Tacoma Narrows)〉(2003년 초연)를 중심으로 유럽 컨템포러리댄스의 일면을 탐색해 보도록 하자.

유럽에 위치하지만 현대무용의 변방지대나 다름없던 벨기에에서 모리스 베자르의 현대발레로 무용수업을 시작한 드 케이르스마커는 미국에서 포스트모던댄스를 경험하면서 순수무용, 반복적 움직임, 미니멀리즘, 음악의 몸적 해석력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한 안무가이다. 〈비치스 브루〉에서 드 케이르스마커는 퓨전재즈의 돌풍을 몰고 온 전설적인 재즈명인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가 1969년에 제작한 명반 〈비치스 브루〉에 담긴 음악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감각적인 음



DV8 피지컬 씨어터의 〈Just for Show〉

새로운 춤장르에 대한 명명성, 개념 정의, 분류 체계 등 아카데미한 작업이 더딘 한국의 무용계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미국의 현대무용 혹은 포스트모던댄스와 변별성을 갖는 유럽 현대무용의 본성을 인식하고서 컨템포러리댄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악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특히 그녀는 음반에 참여한 13명의 연주자 수에 맞추어 13명의 무용수를 등장시켜 각 재즈 연주자의 즉흥에 무용수들이 전통 재즈, 디스코, 스트리트 댄스, 브레이크 댄스 등 다양한 춤을 구사하며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대응하게끔 연출하였다.

완공된 지 4개월 만에 바람과 진동으로 힘없이 무너진 워싱턴주의 '타코마 협교'로부터 영감을 받은 〈타코마 협교〉에서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의 음악을 사용해서 역시 미니멀 스타일의 춤을 완벽하게 구현해 내었다. 여기서 드 케이크스마커는 즉흥을 유사성 혹은 반복성 그리고 변별성의 움직임 구조로 활용하면서 미니멀 스타일을 도출해 내었다. 특히 움직임의 반복 패턴을 통해 안무 구조를 견고히 다져나가는 춤의 전개과정과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던 라이히의 미니멀리즘 음악을 움직임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해석한 후, 무용수의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현해 내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안무력에 깊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춤의 신생국가 벨기에를 10여 년 만에 컨템포러리댄스의 성지로 만든 이 45세의 여성 안무가의 저력이 어디서 근원했는지 궁금해졌다.

세계 공연예술계의 표준스타일로 떠오른 유럽의 컨템포러리댄스

벨기에가 내세우는 플라망 스타일의 컨템포러리 안무가는 기껏해야 5명에 불과하다(안느 테레사 드 케이크스마커, 빔 반데케부스, 얀 파브르, 시디 라르비 쉼프카위, 알랭 플라텔). 그런데 이들 5명의 안무가들이 자신들의 강렬한 감수성과 독특한 안무구조로 국제 무대에 어필하며 컨템포러리댄스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DV8 피지컬 씨어터의 예술감독 로이드 뉴이슨(Lloyd Newson)은 호주 출신으로 안나 드 케이크스마

커와 마찬가지로 춤역사가 길지 않은 신생국가 출신이다. 심리치료사로 일하던 그는 춤을 시작하기에는 한참 늦은 20대 초반에 무용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영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안무작업에 뛰어들었다. 벨기에의 빔 반데케부스와 얀 파브르도 건축과 영상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20세 이후에 춤을 시작했다. 여기서 유럽 컨템포러리댄스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참조할 만한 춤 혹은 규범적으로 따라야 하는 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사로잡은 것은 발레와 현대무용이 아니라 실험성 강한 미국의 포스트모던댄스였으며, 특히 벨기에의 안무가들은 머스 커닝햄의 우연성, 스티브 팩스톤의 집속 즉흥, 로라 딘과 트리샤 브라운의 미니멀 댄스 등 포스트모던댄스의 수용과 확장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창조정신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반무용(Anti-dance)'을 지향하는 뉴슨과 같은 안무가들은 고정된 춤형식과 획일화된 테크닉을 탈피해서 춤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허상을 깨는 데 주력한다.

두 번째는, 타예술 분야 출신인 이들 안무가들은 춤에 음악, 연극, 멀티미디어를 혼성시켜 예술적 경계 허물기에 성공하였고, 독특한 시각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움직임의 중요성과 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장르와 차별되는 혁신성으로 움직임과 몸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컨템포러리댄스의 안무가들은 발레와 현대무용의 공연에서 객관화 혹은 물체화된 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몸을 통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용수의 몸을 보다 감각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며 무용수들이 즉흥을 통해 안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뉴이슨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재와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작품,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응답하는 것,

끊임없이 나와 외부세계를 관찰하고 그것의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컨템포러리댄스의 본질이라고 말한다(2005 DV8 피지컬 씨어터 내한 공연 팸플릿). 유럽 안무가들의 컨템포러리댄스가 국제적으로 어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즉 세계에 대한 그들의 지적 성찰과 개별화된 인간과 인간성에 관한 그들의 열정이 춤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무에는 동성애, 에이즈, 성정체성, 전쟁, 대중문화 등 동시대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이슈가 폭넓게 반영된다. 이들은 세상과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따라서 일상에서 찾은 주제와 대사를 춤의 중요 모티프로 활용한다. 이와같이 유럽 컨템포러리댄스의 최대 강점은 움직임에 바탕을 두고서 대사, 노래, 멀티미디어, 기타 여러 방법들을 활용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유럽 컨템포러리댄스는 글로벌한 춤

간혹 유럽 안무가들은 ‘동시대’를 뛰어넘는 ‘컨템포러리’(혁신성, 최신성) 한 포장으로 발칙하게도 전세계 관객들에게 글로벌한 공감을 요구한다. 유럽 컨템포러리댄스가 과연 미학적 수준에서 글로벌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춤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점에 대해서는 유럽 안무가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례로 로이드 뉴슨은 “완벽함, 이상, 아름다움 등 모든 미학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모든 춤과 무용수의 몸은 정치적이며 민족적이라서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컨템포러리댄스가 몸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확장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무용수의 몸은 정치적인 발언을 담는 공간, 즉 ‘정치적인 몸(political body)’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에게나 ‘공감’을



로사스 무용단의 <비치스 브루 / 타코마 협곡>

받을 수 있는 현대무용은 요원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종교와 정치, 민족과 국가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공유할 만한 감수성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DV8 피지컬 씨어터와 로사스 무용단의 춤에서 ‘영국적’ 혹은 ‘벨기에적’이라는 지역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작품에 내재된 정치, 사회, 문화 정서로 인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춤은 영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하고 벨기에적이면서도 글로벌한 것이다. 지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감각이 혼합된 것을 ‘글로벌(glocal)’이라고 한다면, DV8 피지컬 씨어터와 로사스 무용단의 공연은 모두 글로벌 댄스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공연예술계는 유럽 컨템포러리댄스의 새로운 물결을 제대로 관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다. 🎭